

|| 태재연구재단 브리핑

“7 대분야 초일류 역량확보” 연구주제 개괄

다음 단계 사회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의 폭 넓은 발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분야가 선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타 분야도 후속적으로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간에 한반도 초일류사회로의 발전을 꾀하는 우리로서는 채택해야 할 전략이다.

우리 사회에 핵심 분야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 지혜를 모아보면, 싱크탱크, 대학, 기업, 미디어, 정부, 정당, 군대와 같은 7 대 분야가 핵심일 것이다. 그 사회의 두뇌나 경쟁력 모체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핵심 7 대 분야가 우선 발전 대상이다. 따라서 핵심 7 대 분야를 남들보다 앞서서 안목으로 혁신하고 세계 최정상화 하는 방법을 분야별로 모색해야 한다. 최전선 사례들을 조사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사안들을 분야별 혁신 로드맵에 반영시키며,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사회 발전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핵심 7 대 분야 우선적 최정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미래 초일류사회 한반도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